

서울 문리대 일곱 데모쥘

● 제정구

*제정구님은 경남 고성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66년 학생운동으로 서울대를 제적당했으며,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975년 출소 후 양평동, 부천 등지에서 민민운동을 하다가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당선되었다. 1996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활동하다가 1999년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젊음을 유혹하는 단어 ‘민주’

4·19 혁명과 5·16 쿠데타 등 연이어 나라를 뒤흔든 일대 사건들 속에서도 나는 대학입시라고 하는 더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해 있었다. 굳이 어머니를 들먹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자형이 다닌 대학을 다니고 싶었다. 게다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지독한 오기가 ‘재수’도 아닌 ‘4수’까지 나를 끌고 갔던 게 아닌가 싶다.

어쨌든 어려운 시기를 거쳐 결국 4수만에 대학입시에 성공했고, 그때부터 순탄치만은 않은 대학생활이 시작되었다.

대학시절을 떠올리면 주로 군대를 갔다와 복학한 후의 기억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6월 3일에 6·3사태 기념 성토대회에 앞장섰다가 근신처분을 받기도 하고, 11월에는 소위 ‘유기천 총장 쌍권총 사건(서울대 총장께서 신변안전을 위해 권총 두 자루 휴대 신청을 했다는 것이 기사로 실려 학생들이 항의했으며, 그 건으로 유총장님은 사퇴를 했었다)’으로 노오란 은행 낙엽이 수북한 교정에서 밤샘 농성을 하는 등 1학년 때의 추억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삶에 굵은 획을 긋는 일들은 없었다.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했다가 다시 복학한 것은 교련반대 데모가 반교쇼 데모로 전환되고 있던 1970년도 벽두였다. 어떻게 보면 그때야말로 나를 이끌어왔던 가문의 영화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할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은 내게 이미 성공으로 향하는 주단을 깐 꽃길로 서가 아니라 암담한 민족의 현실로 먼저 다가왔다. 1970년 여름 방학 기간 중에 복학생들의 예비군 훈련이 있었다. 그것을 계기로 문리대 안에 복학생 서클인 부문회(復文會)를 만들어 내가 초대 회장이 되었다. 대학이라는 공간을 통해 이 땅의 정치현실에 눈과 귀가 번쩍 열려버린 것이다. 게다가 정의니 민주니 하는 지 금껏 인식세계 외부에 있던 단어들에 내 젊음을 유혹했다.

학내에서 먼저 감지된 파쇼화의 기운

복학 후 언제부터인가 학내에서는 헌법 권위자로 알려진 한 태현 교수가 대만의 총통제를 연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학생들은 뭔가 쫓이는 데가 있는 이 움직임의 내막을 알고 싶어 했고, 박대통령의 임기 마감과 맞물린 이 심상치 않은 사태를 파쇼화의 시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내가 다니던 정치학과 강의실에서도 이런 소문을 두고 교수와 학생들간의 입씨름이 자주 벌어지곤 했다.

학생 지금 정부가 교련수업을 시작한 것은 캠퍼스를 병영화하고 총통제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교수 너무 비약적인 결론이 아닌가?

학생 파쇼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교수 속단은 우리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학생 과연 속단일까요? 만일 저희 예상이 현실로 드러난다면 그때 교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수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일어나서도 안된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나라에서 어찌 살겠나?

속단은 해롭다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땅에서 살지 않겠다고 하신 교수님의 말씀을 우리 역시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나타나는 현실은 우리의 순진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었다. 개헌의 내용이 유신헌법이라는 정보까지 들려왔다.

조국의 주인이 될 거냐, 이방인이 될 거냐

‘파쇼화’라는 화두 앞에 교수 학생할 것 없이 누구나 논쟁을 벌이던 그 해 1970년에도 여지없이 학생선거는 다가왔다. 이때 치러진 문리대 학생회장 선거에서 운동권 출신과 비운동권 출신이 겨루게 되었다. 소위 운동권으로 분류되던 이호웅(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출마하게 되면서 나는 호웅이의 부탁으로 부문회 회장 자격으로 선거대책본부장이 되었다.

선거 결과, 호웅이가 문리대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호웅이가 1971년 봄에 교련반대 데모를 하다가 제적이 되면서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되자, 반파쇼 투쟁을 해야 된다는 입장과 하지 말자는 입장으로 나뉘어져 학생회가 마비상태가 되어 버렸다.

현 정세가 얼마나 급박한지에 대해서는 개학 전에 이미 문리대뿐만 아니라 법대의 장기표, 상대의 김근태 등과 교감이 있었고, 만일 행동을 하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선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는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학생회장의 제적으로 학생회가 마비상태에 이르자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게 되었다.

당시의 데모는 주로 시국성토타회 형식의 집회를 가진 뒤 분위기가 고조되면 밀고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복학생 대표로 호응이 유세 때부터 대중 앞에 나섰던 경력과,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현 비상시국에 대한 위기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성토타회의 연사로 자주 나서곤 했다.

“지금 여기에서 군사독재를 막아내지 못하고 떠밀려 한 줌의 군사 독재자들의 손에 나라가 독점된다면 우리는 조국에 살면서도 조국의 이방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의 이 거사는 조국의 주인이 될 것이냐, 이방인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주인이 되기 위해 저 교문을 박차고 길거리로 나갈 것이냐, 이방인을 감수하면서 도서관에 묻힐 것이냐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일반 학생들과는 달리 나는 4수를 하여 학교에 들어왔고, 게다가 군대까지 다녀온 복학생이었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중늬은이 학생이었다.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데모같은 것에는 그만 신경 끊고 졸업 후의 안정된 직장이나 자신의 멋진 미래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나이가 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학생회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으면서

도 성토대회가 있을 때마다 연단에서 열변을 토하곤 했다. 현실에 대한 나의 의식이 그토록 절박했던 것일까? 아니 어쩌면 나의 행동 저변에는 자기도취와 영웅심리가 섞여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인격의 미성숙에 있으면 있었지 동기의 불순함에 연유한 것이 아니었음은 지금도 장담할 수 있다.

늙은 학생의 절규는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교수님들에게도 공감을 갖게 했던 모양이다. 얼마나 열변을 토했던지 어떤 교수님은, “문리대 생기고 나서는 제정구 자네 성토가 제일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자네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나도 나서서 데모하고 싶을 정도라니까!”라는 말씀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보기관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할 텐데, 아예 문리대 1급 데모꾼으로 낙인찍혀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데모꾼으로 낙인찍힌 사건

그날도 언제나처럼 성토대회는 자연스레 반파쇼를 외치는 데모로 이어졌다. 문리대를 중심으로 성대입구 쪽까지 전선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명륜동 쪽으로 접값아 보이는 중년의 아저씨가 유유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때 운동장에 있던 한 학생이 소리쳤다.

“사꾸라다, 잡아라!”

요새식으로 말한다면 프락치라는 소리였다.

소리나는 쪽으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니, 그 중년의 사나

이는 이제까지의 유유자적한 걸음과는 달리 민첩한 동작으로 골목으로 갑자기 사라진다. 예감이 이상했다. 서너 명이 함께 골목으로 따라붙었는데, 그 골목은 막다른 골목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아저씨가 귀신같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더 수상한 생각이 들었다.

잠시 서성이는데 한 집의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문간방에 웬 아저씨가 소반을 받고 앉았다가 꺾 소리를 지른다.

“누구요?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다니!”

“여기 아저씨 한 분이 들어왔는데 ……”

“들어오긴 누가 들어와? 그런 사람 없으니 썩 나가요.”

무안해져 대문을 닫고 나가려다가 식사 때도 아닌데 웬 상을 받고 있나 하는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힐끗 다시 보니 상 위에는 식사 대신 물이 한 잔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렇지, 도망을 가면 어디로 가?

“그만 나오시오!”

“그만큼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학생들이 어디서 횡포야, 횡포가!”

“일단 나오시오. 사꾸라가 아니면 그냥 보내줄테니!”

“아니, 이놈들이 남의 집 방안까지 들어와서……”

“당신 집이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온거요?”

점점 더 수상하게 구는 아저씨를 끌어내오니 어느새 학생들이 사꾸라 얼굴 좀 보자고 몰려들었다. 그때 학생들 틈을 비집고 다가

오는 문리대 담당 정보과 형사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이 보였다.

“제형, 어찌려고 그래?”

언제부터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됐다고 건네는 말소리가 은근하다.

“뭘? 그러기에 저 나이 먹어 누가 비겁한 사꾸라짓을 하래?”

“그러지 말구, 저분은 우리 과장님이야.”

“옳지, 사꾸라 왕초구나. 과장이 똥 때문에 여기까지 친히 납시었나?”

“우리 과장 다치면 큰일나! 그러니 제발 참으라고!”

겉으로는 큰소리쳤지만 나도 머릿속으로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난감했다. 최루탄을 쏘고 곤봉으로 후려치고 동료 학생들을 닥치는 대로 끌고 가는 상황에서 감정이 고조된 학생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학생회 사무실로 학생들이 몰려왔다.

“사꾸라를 끌어내라! 우리 친구들 다 잡혀갔다!”

아니나 다를까, 학생들이 소리치며 에워싸기 시작한다.

“지금 사꾸라 한 명 가지고 분풀이할 때냐? 어서 나가서 물려오는 경찰을 막는 것이 더 급하다. 여기는 내가 맡을 테니 신경 쓰지 말구!”

나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게다가 재학생들에게는 4수까지 합치면 대선배가 아닌가. 학생들이 약간 주춤하더니 다행히 다시 데모 대열로 돌아갔다.

“이걸 어찌누? 사람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찌나?”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고병익 학장이 혈레벌떡 쫓아오셨다.

“그럼 어떡합니까? 분명 사꾸라가 틀림없는데, 학생들이 흥분하는 것을 그래도 가까스로 진정시켜 놓은 겁니다.”

“다치면 안되네.”

시간이 한참 지나자 학생들의 흥분도 가라앉았고, 학생회 사무실 주변도 좀 조용해졌다. 학생들 몰래 장본인을 학장실로 인도했다.

“학장님께 인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과장은 학장실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동대문경찰서에서 찾아왔다.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신문마다 ‘서울대생, 동대문경찰서 정보과장 납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낸 것이었다.

“납치는 무슨 납치입니까? 그 정도면 최고로 모셔다줬는데.”

내 입장을 강변해 보았지만 성난 학생들 틈에서 정보과장을 구해준 죄(?)가 상당히 큰 것이어서 나는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하룻밤이 지났다. ‘구속이구나, 치사한 놈들! 뭐라고 죄목을 붙이는지 어디 두고 보자!’하고 있는데, 정보과장이 부른다는 전갈이 왔다.

“고맙다. 나가봐라.”

정보과장이 한 말이었다. 내부에서는 구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구속시킬 만한 명분이 약해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서야 전해들었다. 나야 정보과장에 대한 감정적 린치로 행어나 우리의 반과쇼 데모에 피해가 갈까봐 취한 행동이었지만, 아무튼 나는 데모 학생으로서는 정보과장의 처

사와 배움을 받으며 경찰서 문을 나선 전무후무한 학생이 되었다.

그 이후 나는 문리대 내 가장 영향력이 있는 1급 데모꾼으로 낙인이 찍혔다.

형사를 역추적하며

문리대의 1급 데모꾼으로 찍힌 후 본격적인 수배와 도피생활을 하게 된 것은 1971년도부터였다.

그 해도 어김없이 2학기가 시작되었고, 10월 축제를 앞둔 교정의 가로수들은 특유의 가을빛을 띠고 있었다. 나와 몇몇 친구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던 문리대 복학생 모임에서는 개교 기념일 행사의 하나로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씨와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씨의 초청 강연회를 추진하고 있었다. 양씨로부터 나오겠다는 승낙도 받고 선전전단도 다 준비를 한 상태였다.

10월 15일, 나는 강연회 준비를 마무리하려고 이른 아침 집을 나섰다. 학교 쪽으로 돌아 정문앞 다리끼에 이르자, 문리대 담당인 동대문경찰서 형사가 험상궂게 생긴 떡대 2명과 함께 정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순간적으로 ‘이크! 뭐 일이 있구나. 날 잡으러 왔나?’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지만 달아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상쩍게 보일 것 같아 먼저 인사를 했다.

“꼭두새벽부터 웬일이십니까? 오늘은 데모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형사는 수인사엔 대꾸도 않고 눈만 껌벅거리며 똥가

를 전하러 한다. 그러자 떡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게 아닌가?

‘저 동대문경찰서 형사가 그 동안 학교에 열심히 들락거리더니 그새 우리 학생들 면면을 파악하고 있구나!’

감탄이 절로 나왔지만 한가하게 감탄이나 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경찰서 차원이 아니라면 혹시 중앙정보부?’

식은땀이 났다.

“김형사, 잠깐 수위실에 들러 소변 좀 보고 올 테니 가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 내 긴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는 오줌이 마려운 척, 그리고 내 쪽에서 꼭 돌아와 할 이야기가 있는 척 둘러대고는 수위실로 향했다. 그리고 수위실 화장실 뒷문을 통해 짹째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 맨 먼저 서클 사무실로 향했다.

“뭔가 낚새가 이상해. 여기 있다간 다 잡혀갈 것 같으니 빨리 피하는게 좋겠어. 얼른 서둘러!”

이렇게 알리고는 학교 담을 넘어 바깥으로 나왔다. 나와서 보니 아까 그 떡대들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는 가장 정보가 빠른 학보사로 걸음을 옮겼다. 학보사는 문리대 맞은편인 의대 함춘관에 있었다. 함춘관으로 향하는데 의대 수위실 뒤쪽에 형사들이 깔려 있다.

“학보사 기잔데요. 마감원고 땀에……”

능청스럽게 말했더니 의외로 순순히 들여보내준다. 이렇게 무사히 학보사에 들어서는데 나를 보자마자 구범모 주간이 화들

짜 놀라며 눈을 휘둥그레 뜬다.

“제군! 여긴 왜 와?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러게 말이예요. 정문에도 의대 앞에도 형사들이 짹 깔려 있던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

“이 친구야. 지금 위수령이 떨어져서 학교를 군인들이 장악하게 되어 있어! 문으로 나가지 말고 빨리 담 넘어 도망쳐!”

발을 동동 구른다. 의대 영안실 뒤쪽으로 나와 급하게 택시를 잡아탔다. 돈암교에 이르니 이미 군용차들이 학교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나를 쫓는 형사를 쫓으며

태평스레 등교했다가 졸지에 수배자가 되어버린 나는 방향을 어디로 돌려야 할지 난감했다. 이때 문득 우석의대에 다니는 고등학교 동창의 하숙방이 떠올랐다. 일단 그 친구가 하숙하고 있는 성대 앞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곳에서 하숙을 하고 있던 다른 학생들이 줄줄이 잡혀가는 걸 보면서 3일을 버텼다. 그러나 마냥 한 곳에서 죽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다음 피신처는 이미 형사가 날 잡으러 왔었다는 김세중의 집으로 정했다. 그리고 김세중 집에서 송광성 집에 형사가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송광성 집으로 향하였다.

나의 피신방법은 이런 식으로 형사를 역추적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를 추적하는 형사의 뒤를 쫓다 보니 어느덧 열흘이 지

나갔다. 형사들은 서울 곳곳을 샅샅이 뒤지고 난 뒤 이번에는 지방을 차례차례 훑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있을 만한 곳도 어느새 거덜이 났다. 나의 도피처도 이제 지방이 되어야 했다. 피붙이가 있는 고향이나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는 진주로 향하는 것은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나의 목적지는 연고가 있는 경상도가 아닌 그 반대편인 전라도여야 했다.

머릿속으로 순천에 살고 있다는 군대 친구 김종락의 주소를 외우며 밤기차에 몸을 실었다. 계절은 가을이었지만 밤의 냉기가 유난히 춥게 느껴졌다. 전라도가 초행길이라 더욱 그랬을 것이다.

“학생, 어디까지 가요?”

“저 학생 아닌데요.”

겉보기에는 처녀인지 아줌마인지 구별이 안되는 옆좌석의 여자가 말을 붙여왔다. 학생이냐고 물어온 것도 아니었던건만 잔뜩 긴장한 나는 도리질을 쳤다.

“아니, 어디까지 가냐구요?”

“순천에 가는데요.”

“어머, 나도 순천에 가는데! 순천에는 뭐 하러 가요?”

여자가 꼬치꼬치 캐물으니 식은땀이 다 난다. 위수령 하의 수배자는 결코 밤기차의 낭만적인 여행자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친구네 집에…….”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하는데, “무슨 일 하세요?” 호기심어린 눈으로 더 바짝 다가앉는다.

“무슨 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철들고 한 일이라고는 가방 들고 학교 다닌 것밖에 없으니 무슨 직업을 둘러대야 할지 적당한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

“글세, 학생인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 내 얼굴에 학생이라고 써 있더라도 하나? 그러면서 여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니 호기심어린 표정이긴 했으나 결코 해코지할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지금은 아니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번 알아 딱혀 볼까요? 음, 데모하다가 도망치는 중이죠?”

“.....”

“맞죠? 내가 이래봐도 척하면 삼척이라고요.”

의기양양해서 말한다.

“내가 데모하는 학생 신고나 할 사람으로 보여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종로 3가에 있는 어떤 바(bar)에서 일하는데 한번 놀러오라는 등, 차비는 두둑하나는 등, 고향집에 부모님 뵈러 간다는 등 묻지도 않은 얘기들을 신나게 늘어놓았다.

나는 산전수전 다 겪어 사람 보는데 이골이 난 이 말동무의 의리도 고마웠지만, 여행길에 우연히 동행하게 된 옆자리의 남자에게 자신을 거리낌없이 내보일 수 있는 이 여자의 자유스러운 신세가 부럽기도 했다. 그리고 부러운 만큼 내 처지가 고달프고 딱하게 여겨졌다.

순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내리지 않았다. 자기도 순천에 간다고 말한 것은 날 떠보려고 한

번 그래봤다는 것이다. 스스로는 제법 침착하고 치밀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세상을 조금밖에 겪지 않은 여자의 눈에도 훤히 드러나 보이는 나의 어리숙함에 그저 실소가 나왔다.

수배자를 맞아준 군대 동기

밤차를 탔으니 순천에 닿은 시간은 아침이었다. 햇살이 고르게 퍼지면서 천지만물을 환하게 드러냈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남의 집에 들이닥치기가 미안해 일단 가까운 곳의 산으로 올라갔다. 산에서 제법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집을 찾으려는데 호남지방에서는 유난히 두드러지는 내 경상도 사투리가 문제였다. 잘 안되는 서울말 시늉을 해가며 간신히 집을 찾으니, 다행히도 군대 동기는 전우애(?)로 날 맞아주며 며칠을 묵게 해주었다.

손님과 생선은 사흘이면 썩는다는데, 게다가 위험부담까지 따르는 수배자를 고작 군대 동기였다는 연으로 싫은 기색없이 숨겨준 그 친구가 지금 생각해도 고맙기 그지없다.

또한 이런 일은 당시 박정권의 파쇼화 기도에 국민 대다수가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했다. 형사대가 김해에 사는 군 동기의 집을 거쳐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추적해 이번에는 김해로 발걸음을 옮겼다.

28살이라는 한창인 나이에 낮에는 하릴없이 산과 공원을 헤매다가 집집마다 불빛이 켜지면 어슬렁어슬렁 내려오곤 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저렇게 집들은 많은데 내 누울 공간 하나 없었다.

그러나 내 외로움도 외로움이었지만 어머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미칠 것만 같았다. 혼자 몸으로 다섯 자식을 키우면서 그렇게 억척스런 교육열을 보이셨던 것은 지금의 이런 내 모습을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쁨이나 자랑이 되기엔 나는 이미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다. 어머니가 원하는 효도를 해드릴 기회는 내 인생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좀더 넓고 여유있게 생각하자.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여차피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나는 더 큰 효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자신을 위로해 보기도 했지만 마음은 늘 편치 못했다. 어머니에게만은 어머니가 으스스대며 환하게 웃으실 수 있는 세속적인 눈높이 효도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강을 건넜다.

이렇게 무사히 해를 넘긴 이듬해 1972년 2월에서야 나는 중앙정보부와 첫인사를 하게 됐다. 그 석 달 동안 데모 주동자로 나와 함께 연루된 신금호의 조사가 끝나고 장기표, 김근태의 재판도 끝났다.

그때는 같은 공범자들이 재판에 회부되어 1심이 끝나면 그 동안 다른 공범자는 그냥 두는 요순시절이었다. 끝까지 추적하고 잡아들이는 현재의 관행은 전두환 정권 때 새로 생긴 것이니, 박정희 시절보다 전두환 시절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지독했던 셈이다.

어쨌든 나는 위수령 사건이 일단락된 후 서울집으로 돌아왔

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하룻밤을 자고 나니 중앙정보부에서 나를 잡으러 왔다. 그리곤 3박4일간 정신없이 두들겨맞았다. 몸서리가 날 정도로. 자다가도 놀라 벌떡 일어나고, 꿈속에서도 손을 저을 만큼 얻어맞았지만 중앙정보부와 나와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무슨 사건만 터졌다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해야 하는 악연의 출발이었을 뿐이었다.

이 첫 수배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면 도망자의 생활은 피해야겠다는 것이었다. 친구나 친지들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치는 것도 미안스럽기 짝이 없는 데다 온갖 천지만물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서너 달이 마치 수년처럼 느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적이 아닌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가운데 내 인간성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갔다.

투쟁의 원칙만 보자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아 소기의 목적을 이뤄내야 한다. 하지만 나는 가능하면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감당해 낼 수 있는 만큼은 버티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앞으로 내 정서가 감당할 수 없는 수배보다는 차라리 구속 쪽을 택하겠다는 원칙을 굳혔다.

어이없는 긴급조치 위반

위수령 건으로 중앙정보부에 다녀온 뒤 나는 청계천에서 단무지 장사와 야학을 하면서 나름대로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73년 3월 복적이 되어 청계천 활빈교회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이듬해인 1974년 1월에 긴급조치 1호에 이어 4월 3일에는 긴급조치 4호가 발동되었다.

뚜렷한 혐의가 없더라도 뻔히 잡혀갈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지만, 수배생활 끝에 어렵게 세운 원칙대로 도망가지 않고 버티기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무슨 빨갱이나 되는 양 지명수배를 내리고 그 전단을 도배하는 마당이었으니, 어차피 도망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도 했다.

4월 3일부터 동부경찰서, 청량리경찰서, 노량진경찰서 등의 정보과 형사들이 쉴 새 없이 판자촌 내 방으로 찾아왔다.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냄새가 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먼저 체포하느냐의 경쟁을 벌인 것이었다.

드디어 4월 10일, 청량리경찰서 형사가 누군가가 나를 신고한 것이 있으니 잠깐 같이 가자고 하면서 연행했다. 사흘씩이나 가두어놓고 이것저것 캐물었지만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자 형사들도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 밤 희안한 꿈을 꿴다. 내가 바닷가에 앉아 있는데 모래밭에서 커다란 발이 쓰욱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그 발이 내 등을 무자비하게 밀어대는 것이 아닌가! 이게 무슨 일인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다만 그만 바닷물에 빠지고 말았다.

워낙 살벌한 상황이었고 매타작이나 고문의 강도도 상상을 초월했던 때이기에 별의별 불길한 생각이 다 들었다. 제아무리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끔찍한 육체적 고통 앞에서 다른 동료들이 끝까지 버티어주리라 기대할 수도 없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는 고작 새로 동료가 붙들려 들어오면 그 친구와 관계된 선까지만 붙어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내가 이렇게 무참히 부숴져야 하나?’

불길한 꿈까지 덧붙여져 심사가 여간 뒤숭숭한 것이 아닌데 담당형사가 내가 간혀 있는 숙직실로 들어왔다. 왈카 울화가 치밀었다.

“긴급조치라는게 도대체 뭐야? 멀쩡한 사람 가두어 놓기나 하고…….”

“긴급조치가 부당하다는 건가?”

내 말꼬리를 자른 담당형사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흘렀다. 아빨사, 긴급조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언급을 해선 안되는데 나도 모르게 긴급조치를 비난하고 말았으니, 결국 긴급조치를 어긴 것이었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나는 긴급조치를 위반한 꼴이 되었고, 갑자기 나타난 발에 떠밀려 바닷물에 빠진 꿈대로 긴급조치를 위반한 증거가 성립된 것이니 영장없이 마음대로 구금해 둘 수 있게 되었다.

‘법’이니 ‘정의’니 하는 관념은 폭력 앞에서 하나의 허상이 되어버린지 이미 오래였다. 그러나 아무리 허울이라지만 공권력이란 이름하에, 일어나기 어려운 가장 치졸한 형태의 법집행이 감행된 것이었다.

긴급조치 4호로 결국 구속이 집행됐지만, 그렇다고 수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취조가 시작되었다.

긴급조치 4호 위반이 성립되자 즉시 나는 중앙정보부로 옮겨졌다. 일단 중앙정보부에 잡아다놓고 매타작을 통해 무조건 덮어놓고 ‘불어라’였다. 그로부터 한 명씩 잡혀올 때마다 위반 건수가 하나씩 늘어나갔다.

하지만 혹독한 고문과 매타작, 그리고 잠을 재우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잡혀오지 아니한 동료들과 관련된 것은 불지 않으려고 기를 쓰며 정신을 차리곤 했다. 그러니 누가 잡혀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붙였는지를 감지해 내야 했다. 그래야 잡혀오지 않은 동료들을 보호할 수 있고 새로 잡혀온 친구에게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을 못 자게 한 지 일주일이나 지나자 모든 것은 허사였다. 무엇을 붙였는지 뭐라고 말했는지조차 의식에 없었다. 모든 것을 있는 대로, 그리고 없는 것까지도, 아닌 것까지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털리고 다 해준 후에야 구치소로 넘어갔다.

서대문구치소는 천국이였다. 이렇게 좋은 곳을 왜 겁내고 두려워했던가 싶었다. 3일 밤낮을 계속 잠에 떨어졌다. 그리고 나니 통증도 많이 없어지고 제법 살만 해졌다. 어림짐작으로도 잡혀올 만한 사람도 다 잡혀온 것 같아 제법 여유를 가지려 할 때였다.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중앙정보부에서 불렀다.

“개새끼, 다 분다고 해놓고는!”

“…….”

“이게 이제 보니 아주 악질이야!”

쏟아지는 주먹들.

“이철이 그러는데 니가 김지하를 소개시켜 줬다며?”

유일하게 남아 있던 이철이 잡힌 것이었다.

“이철에게 니가 자금도 댔다며? 사실대로 말해!”

자금 얘기가 나오니 픽 실소가 나왔다.

“산학협동장학금 받은 겁니다.”

“이 새끼, 공부하라고 돈 줬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개인적 원한까지 덧붙여져 2배의 강도로 날아오는 주먹 세례.

“이것도 큰 공부인데…….”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차례 주먹이 날아왔다. 중정 요원이 분개할 만도 한 것이 그 산학협동장학금은 중정에서 추천해 준 것이었다.

중앙정보부에서 주선한 장학금

그러니깐 그게 1973년도였다. 10월에 나병식, 안양로가 주동이 되어 테모를 벌였다. 당시 정국은 김대중씨가 동경에서 납치되어 국내로 압송되고, ‘내무부장관 오치성 해임동의안’ 전으로 공화당 국회의원들조차 줄줄이 끌려가 매를 맞는 등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었다.

1973년 가을, 군대 갔다온 사람들 모임인 부문회(復文會)에서 “이렇게 삼엄할 때는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결국 시위를 계획하게 되었다.

시위가 한창 치열한 중이었지만 앞장서지 말라는 동료들의 만류를 받아들여 나는 학교를 빠져나왔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일단 청계천 판자촌에 있는 활빈교회 신자의 집에서 보름 동안 머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니 대기하고 있던 중정요원이 들이닥쳤다. 다시 중앙정보부행이었다. 현장에서 잡힌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기가 찰 노릇이었다.

“니가 주동자지?”

“이렇게 시달릴 거 같아 집에서 공부만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주동자에 대한 징계도 끝난 마당이잖아요?”

“주동 안한 것은 알겠는데…….”

뜸을 들이더니 대뜸 이렇게 물었다.

“안양로 어딴어? 넌 알고 있지?”

안양로를 잡는게 목적이었던 것이다.

이 날로 중앙정보부에서는 풀려 나왔으나 집에서 눈만 붙이고 학교에 나오면 다시 요원에게 붙들려 중앙정보부 차를 타야 했다. 이런 식으로 안양로를 잡으러 다니는 기간이 한 달이었으니 내가 학생인지 중앙정보부 요원인지 분간이 안될 지경이었다.

그러나 예전에 형사를 역추적하며 도망다니던 경험을 십분 발휘해 이번에는 안양로가 이미 다녀간 집만 골라 중정요원을 끌고 다녔으니 한달 간 안양로의 뒤를 성실하게(?) 쫓아다니는 셈이었다.

나의 성실성에 감동했는지 어느 날 이 친구가 뜻밖의 제안을 해왔다.

“너 중앙정보부에 들어와라.”

순간 아찔하면서 기가 콕 막혔다.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냐

고 속으로 열이 뻥쳐 올랐지만 나도 산전수전 겪으면서 이런 경우의 분노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아직 졸업도 안했는데요, 뭐.”

“한 학기 남았잖아. 2급으로 채용해 주겠다. 이 정도면 파격적인 대우야.”

당시 고시에 합격하면 3급이 되었으니 파격적인 대우이긴 했다. 내가 아무리 세속적 명리를 좇고자 180도 방향을 튼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른 데도 아닌 중앙정보부를 택할 수 있겠는가?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다음날도 생각해 보았느냐고 채근이다. 이대로 몽기적거리다가는 발목을 잡혀 움싹달싹도 못할 게 뻔하다.

“실은 요새 내가 마음잡고 공부하고 있어요. 고시에 합격해서 당당히 중앙정보부의 문을 두드릴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해? 아무리 서울대생이라지만 고시가 어디 누워서 떡먹기야?”

“사람이 눈앞의 이익만 보고 사나요? 나도 자존심이 있지. 피차 서로 떳떳하게 만납시다.”

너스레를 떨다가 말이 한발 앞서, “고시를 준비할 테니 장학금이나 두둑히 보태주십시오”라고 해버렸다.

“장학금?”

그러더니 장학금을 선뜻 주겠다며 난데없이 주민등록등본에 호적초본, 그리고 이력서 등을 써 오란다. 장학금 주는 데 등본, 이력서라니, 속셈이 뻔했다. 서류로 나를 묶어두려는 것이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떼온다, 뭘 서두르냐, 천천히 하자 이런 식으로 또 일주일을 끈 후에야 나는 겨우 중앙정보부 특채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새 11월이 되었고 기말고사가 시작되고 있었으니, 40여 일을 끌려다니며 시달린 꼴이었다. ‘무고한(!) 시민의 인권과 명예가 이렇게 쉽게 짓밟힐 수 있는가’하고 꽤 씩씩한 생각이 들었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산학협동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실제 등록금보다 더 많은 돈이 나왔다. 이 장학금이 ‘민청학련 사건’의 자금책으로 둔갑한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리된 것이었다.

부풀려진 ‘민청학련사건’

어이없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고 결국 내게 인생의 큰 분수령이 되었던 이 사건의 시발은 장학금 해프닝(?)이 있기 한 두 달쯤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를 포함하여 몇몇의 복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고 나오면서 술 한잔 마신 일이 있었다. 술 마시는 도중에 “운동을 산발적으로 해서는 이 시국을 도저히 뚫고나갈 수 없다. 현 시국에서는 학생운동이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하고, 그렇다면 위험이 따르더라도 전국적으로 운동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다가 내가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끌려다니면서 가을을 다 탕진하고 후배, 교수님, 동료들의 온갖 도움을 받아가며 기말시험을 다 치른 12월 초에 유인태를 위시한 운동권 후배들과 안암동에 있는 한 막걸리 집에서 쯤파티를 했는데, 여기서 술 한잔

씩 마시고는 ‘산발적인 시위를 지양하고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하자’는 원칙을 만들었다.

그후 정릉 고갯길의 석굴암에서 몇 번의 모임을 더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누구를 앞장세울 것이며, 전국 연락망은 누가 만들 것이지 등을 논의했었다. 이철이라는 후배가 앞장을 서겠다고 하는데, 제대 복학생이어서 이철은 운동권 멤버들과 안면이 많지 않으니깐 잡히더라도 우리들의 피해가 적으니 적격이라고 누군가가 추천했다.

그리고 이철이 날아가면 2번 주자로는 황인성을 하고, 전국 연락망은 유인태가 줄업을 하는 데다 아버님이 목재사업 관계로 전국을 다닐 수 있으니 최적격자라는 얘기들을 나누었다.

나는 그때 이철이란 이름을 처음 들었다. 그리고 나서 이철을 만나게 된 것은 이듬해인 1974년이 되어서였다. 이철이 성명서의 초안을 잡기로 한 3월, 이철이 내 앞에 불쑥 나타나 인사를 했다.

“이철입니다.”

짱짱하고 다부진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이철은 김지하의 문재(文才)가 필요하다며 나에게 지하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했다. 나는 기꺼이 연결해 주었고, 때마침 호주머니에 들어와 있던 산학협동장학금이란 거창한 이름의 돈도 함께 주었다.

내 머릿속에는 자금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이 인쇄도 해야 하니 딱연히 돈이 필요할 거란 생각에 주머니를 텅 것뿐이었다.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건넨 돈이 수사기록에서 자금으로 둔갑했으

니 결과적으로 중앙정보부가 민청학련의 자금책이 된 꼴이었다.

‘민청학련 사건’은 당국에 의해 부풀려질 대로 부풀려졌다. 전국 연결책인 유인태가 여정남, 이강철 등을 대구에서 만난 일이 있었는데, 당시 여정남은 대구의 혁신계 인사들과 교류가 있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여정남을 매개로 인혁당의 배후조종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우리들의 전국에 걸친 동시다발적인 시위계획은 ‘민청학련 사건’이라는 거대한 조직사건으로 확대되어 발표되었다.

이철이 마지막으로 구속됨으로써 나는 이제껏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을 완전히 다 털어놔야 했다.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일까. 이젠 내가 지켜내야 하고 보호해야 할 사실은 한 오라기도 없었다. 그렇게 무참하게, 그렇게 남김없이 까발려졌던 것이다. 구치소에 돌아온 나는 참담함과 부끄러움에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거창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순진하기 짝이 없었던 우리들의 전국 동시다발 데모계획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훨씬 그럴듯하고 정교하게 재구성되어 발표되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재판에 회부되었다. 나는 20년 구형에 15년 형이 선고되었다. 당시 재판장은 주월사령부 출신의 삼성장군이었는데, 그는 훈장을 덕지덕지 붙이고 나와서 군사재판의 권위를 뽐내고 있었다.

“재판장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월남에서 국위를 선양

한 재판장님은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재판장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된 나의 최후진술에 재판장은 의외라는 듯 바라봤으나 과히 싫지는 않다는 듯 빙그레 미소까지 지었다. 나의 진술은 이어졌다.

“당연한 대가로 재판장님은 훈장을 받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저 역시 밥 굶고, 발 부르터 가면서 모든 것을 걸어 애국했는데 재판장님과는 달리 왜 죄수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야 합니까? ……재판장님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아시겠지요? …… 제가 죽어 이 나라가 잘 되리라 생각하시면 서슴지 말고 저를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은 내 최후진술이 끝나자, 재판장은 처음의 미소를 싹 지우고 냉랭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철은 그때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나와 정치권에서 한 배를 타게 된 이철은 당시 사형을 선고받고 법원에서 돌아오는 자신을 보더니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술회했다.

“야, 사형받은 니들은 좋겠다!”

군사정권의 어처구니없는 범집행에 대한 분노일 수도, 함께 어려운 길을 가게 된 동지에 대한 격려일 수도, 아님 어찌보면 치기어린 영웅심이 북돋운 만용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했던 사실은, 기나긴 중앙정보부 조사과정과 폭압정치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죽음이란 우리 모두에게 비현실적이거나 상징적인 단어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